

## 300-1-085. 신문조서(呂運亨Ⅲ 大正8년 및 치안유지법 위반)

## ■ 呂運亨의 신문조서(Ⅲ) 수록

- 이 문서철은 呂運亨사건의 신문조서(Ⅲ) 기록으로 앞의 I, II에 이어지는 검사의 예심청구 내용과 공판 내용 및 공소심공판 내용 등이다.
- 呂運亨은 前述(I)한 바와 같이 南京 金陵大學 英文科 수료 후 上海 佛租界 協和書局에서 근무하고 教師, 通信 업무에 종사한 바 있으며, 10여 년 간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 하였다. 張德秀 등과 上海 佛租界 內에서 新韓青年黨을 조직하였고, 北京의 金奎植을 초청 베르사유 平和會議에 조선 대표로 파견되었으며, 1922년에 신한당 대표로 모스크바 제3인터내셔널 遠東민족대표대회에 참석하여 조선독립운동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또, 1919년 임시정부 성립 후 李東輝가 고려공산당을 조직하자. 이에 共鳴하여 번역부 위원이 되어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 ABC』 등의 출판물을 작성하고 여러 지역에 배포하였다.
- 임시정부의 安昌浩와 國民代表大會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1923년 1월 上海에 1백여 명을 모아 6개월 간 국민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1922년 11월 上海 趙尙燮의 집에서 學兵(屯田兵) 1만 인 양성자금 모금을 위해 韓國勞兵會를 조직하고, 教育部長이 되어 활동했다. 1924년 安昌浩 외 20여 명과 韓國獨立促進會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26년 佛租界 三一堂에서 임시정부 재정구제를 위해 임시정부 경제후원회를 개최하여 200여 원을 각출하였다. 3월 1일 孫秉熙의 獨立宣言 후 임시정부를 조직하여 각 기관을 설치하고, 제규칙을 만들어 각종 부속 결사를 통해 독립운동을 계속하였으며, 外務委員長으로 활약하였다.
- 京城의 曹奉岩이 조선공산당의 대표 승인을 위해 모스크바에 갈 때 上海에서 露國 副領事 율디에게 소개하여 旅券交付를 도왔다. 검사의 예심청구서의 범죄 요약 이며, 그 후 변호인 宋永祥·許憲·李宗聖·李仁·金用茂 등이 변론을 담당했다.
- 呂運亨은 1930년 2월 22일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으로 판사의 1회 피고인 신문조서가 시작되었다. 이 公判은 2회 2월 27일, 3회 2월 28일, 4회 3월 3일, 5회 3월 4일, 6회 3월 5일, 7회 3월 6일 계속되었으며, 3월 7일 검사국에 의견을 구했고, 金炳魯·楊潤植·權承烈·韓國鍾·孫英·李昌輝 등의 辯護士가 선임계를 제출했다. 1회 公判은 4월 9일 진행되었고. 피고인의 만성치질 및 左肋間 신경통 진단서에 따라 刑訴法 116조에 의거, 4월 2일 병보석 신청이 있었으나 不許되었다(5월 12일). 2회 公判은 4월 26일에 있었으며, 1919년 4월 26일 制令7號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으로 형이 선고되었다. 1930년 5월 2일에 控訴申請書 제출로 京城覆審法院에 계류 중이며, 權承烈·金炳魯·楊潤植·金用茂 등 辯護士의 立會下에 1930년 2월 28일 1회 公判이 있었다. 6월 9일 2회 公判에서 1919년 制令7號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미결구류 150일 通算의 刑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1930년 6월 12일 上訴權 포기申請으로 控訴가 完結되었다.